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 전통사상 교육 방안 연구

-단군신화를 중심으로-

최주열(선문대학교) · 최권진(상명대학교)

<Abstract>

Choi, Ju-Youl & Choi, Gwon-Jin. 2009. A Study on Teaching Methods of Traditional Korean Thoughts to Foreign Learners of Korean Language - with a focus on the Dangun Myth. *The Language and Culture* 5-3: 1-22. This study is an attempt to teach traditional Korean thoughts reflected in the Dangun Myth to foreign learners of the Korean language so that they can have much deeper understanding of Korea and the Korean people and that they can ultimately cultivate themselves as global citizens. The authors have tried to take a careful look into the traditional thoughts connoted in the Dangun Myth to specify the contents for the education of global citizenship and also have made a try to search for an effective teaching method. The paper, first, has examined the content and significance of the Dangun Myth. And then it has reviewed the thought of devotion to welfare for mankind, religious thoughts and the thought of harmony as the traditional Korean concepts contained in the Myth. The researchers have tried to set up the contents and methods for teaching the traditional thoughts to foreign learners of the Korean language. The authors maintain that the thought of humanism based on the spirit of devotion to welfare for mankind, the spirit of mutual prosperity of human beings, and the heavenly harmonic principles for a realization of a terrestrial paradise should be taught. They propose the five stages of introduction, understanding, criticism, appreciation and application as a teaching method, through which the foreign learners of Korean not only can improve their reading competence, but also can absorb fully the significance and value contained in the Dangun Myth. (Sunmoon University, Sangmyung University)

Keywords: Dangun Myth, traditional Korean thoughts, Korean language education, devotion to welfare of humankind

1. 머리말

신화는 역사 이전의 내용이지만 역사 시대를 거치면서 이루어진 그 나라의 전통사상¹⁾과 문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 왔다. 한국의 건국신화인 단군신화는 한국인의 민족성과 전통사상의 주축이 되고 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역사적 전통의 한 맥을 전승해 가고 있으며 미래의 연장선에 서 있다. 따라서 한국의 건국신화에 대한 이해는 오늘의 한국인을 이해하고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단군신화는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학교 교육에서도 오래 전부터 다루어 와 한국인 대부분은 단군신화의 기본 사상을 전통적인 생활문화 속에 자연스럽게 수용하여 왔다.

현재 한국에는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으며 100만 명이 넘는 외국인 이주 여성들과 자녀들이 한국에서 살고 있다. 단군신화에는 한국인의 전통사상과 생활상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습자가 단군신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수용하면 한국인의 전통사상과 문화 등 한국인의 정서를 그만큼 넓고 깊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단군신화에 투영된 한국의 전통사상을 교육하여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

* 이 연구는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08년 추계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다.

1) 전통이란 민족생활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형성된 정신적 경향과 성격이 오랜 세월을 통해 영구불변적 특징을 가지고 전승되어 하나의 근본적인 힘으로 민족문화 창조의 범주를 규정하는 것이다. 또한 전통이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계속해서 사상과 문화를 가진 계통을 지니고 변화하는 역사 속에서 변치 않는 것이다. 따라서 전통이란 우리가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보편타당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가치의식이요, 누구나 그 보편타당성을 자각하고 이를 계승하여 자기 창조를 형성해 나갈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심우섭 2004:269). 따라서 이 연구에서의 한국 전통사상이란 한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먼 과거에 형성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정신과 사상으로 미래에도 그 가치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한국 전통사상을 통해 이들이 세계시민으로서의 덕목을 함양하도록 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한다. 따라서 단군신화에 나타난 전통사상 중 인류가 세계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보편 사상교육으로서 세계시민교육²⁾을 위해 도움이 되는 내용을 살펴보고 그 내용을 교수-학습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단군신화의 내용과 의미

2.1 단군신화의 내용

단군신화에 대한 가장 오래된 자료는 『삼국유사(三國遺事)』이다. 『삼국유사』의 기이편(紀異篇)에 나오는 고조선조(古朝鮮條)에 단군신화가 수록되어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신원기 1997:167-168).

- ① 환인의 서자 환웅이 인간 세상을 다스리고자 했다.
- ② 환인이 환웅의 뜻을 알고 천부인(天符印) 3개를 주어 인간 세상을 다스리도록 했다.
- ③ 환웅은 무리 3천을 이끌고 태백산 정상의 신단수(神檀樹)로 내려와서, 그곳을 신시(神市)라고 했다.
- ④ 환웅은 풍백(風伯)·우사(雨師)·운사(雲師)를 거느리고 곡식, 생명, 질병, 형벌, 선악 등 인간의 360여 가지 일을 주관했다.
- ⑤ 곰과 호랑이가 환웅에게 사람이 되게 해 달라고 했다.
- ⑥ 환웅이 쑥 한 줌과 마늘 20개를 주며,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된다고 했다.

2) 여기에서 세계시민교육이란 지구촌 시대에 세계 인류가 민족과 국경을 초월하여 세계시민으로서 보편적으로 공감하고 갖추어야 할 윤리적 기본자세와 가치관에 관한 내용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 ⑦ 곰은 삼칠일(21일) 만에 사람이 되고, 호랑이는 금기하지 못하여 사람이 되지 못했다.
- ⑧ 웅녀가 혼인할 사람이 없어 항상 신단수 아래서 잉태하기를 빌었다.
- ⑨ 환웅이 거짓 사람으로 변해 웅녀와 혼인하여, 단군왕검을 낳았다.
- ⑩ 단군왕검은 평양성에 도읍하여 조선을 세웠다.
- ⑪ 뒤에 도읍을 아사달로 옮겨 1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다가 산신이 되니 나이가 1908세였다.

이와 같이 단군신화는 하늘나라에 살던 천제(天帝)인 환인(桓因)의 아들 환웅(桓雄)이 아버지로부터 지상의 나라를 통치할 권한을 부여받고 풍백, 우사, 운사인 세 명의 신화와 3,000명의 무리를 데리고 지상에 내려와 새로운 왕국을 세우는 이야기이다. 새롭게 세운 왕국의 이름은 고조선으로 한국의 옛 국호이며 한국인은 환웅의 아들 단군왕검의 후손이 된다.

2.2 단군신화의 의미

단군신화 속에는 한민족의 다양한 문화적, 종교적, 사상적,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단군신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인들의 의식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한 역사적·사회적 사실을 어떠한 상징과 내포적 의미로 사용하여 표현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군신화에 나타난 중요한 내포적 의미의 표현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장준혁 2006:37; 양민정 2008:159).

첫째, 단군신화에서 환인과 환웅의 존재는 고대인들의 태양·하늘 숭배 사상이 반영된 것으로 환인은 태양이면서 하늘이고 모든 존재의 근원이며, 이러한 환인의 아들인 환웅이 한민족의 시조인 단군의 아버지가 된다. 이것은 부계가 천신이라는 것으로 신성성과 존귀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치는 인간이 천부적 가치를 지니고 태어난 인격 존중의 가치를 드러내며 한민족의 조상의 뿌리가 하늘에서 비롯된 것을 알려주고 있다.

둘째, 웅녀 변신의 의미를 토테미즘의 관점에서 보면 꿈은 지상에서 존재하는 신이고, 웅녀는 신인 꿈이 여자의 몸으로 잠시 변한 것이 되므로 웅녀는 지신(地神)을 의미하며, 금기를 지키고 시련을 이겨내는 것에 대한 가치 부여와 관련된다. 이 속에는 은근과 끈기의 여성성과 모성의 원형이 있다. 여기에서 일정 기간의 시련은 인간의 인격이 삶의 현장에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자연스럽게 성장한 결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성숙의 과정, 즉 일정한 통과 의례를 거쳐 완성의 단계에 이를 수 있다는 인간의 단계적 성숙 과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환웅과 웅녀의 결합과 단군 탄생인데 이는 천신과 지신의 혼인으로 단군이 천신과 지신의 결합에 의해 탄생한 신성하고 비범한 능력의 인물이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다. 즉 단군은 천부지모(天父地母)의 천손의 혈통이 있다. 이러한 관점은 하늘과 땅은 양과 음의 관계로 동양사상의 근간이 되기도 하며 인간은 하늘과 땅의 합일로 창조된 구체적 실체로서 하늘과 땅의 통합적 존재의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한민족(韓民族)은 오늘날까지 가문의 혈통을 중시해 왔으며 족보를 통해 그 내역을 기록해 왔다. 특히 가족공동체중심 사고는 혈연을 중시해 온 역사적 전통과 무관하지 않다.

넷째, 천상의 환웅도 인간세계를 그리워하여 하강하고, 땅위의 곰도 인간이 되기를 회구하여 결합하게 되는 것에는 인본주의적 사고와 인간중심적 사고가 담겨 있다. 즉 하늘과 땅의 모든 중심이 인간에게 있으며 인간을 통해 구체적 문화 창조와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천상세계와 지상세계의 창조적 발전은 인간의 역량이 크게 미쳐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농경사회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한국의 기후 및 지역적 특성과 연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삼칠일 금기 출산문화, 백일 잔치문화, 민족적 길수 '3'의 숫자 등은 통과의례의 일정 기간을 상징하는 것으로 수리적 의미의 원형이 되고 있다.

일곱째, 마지막에 단군이 산신이 된 것은 인간은 죽음의 종말이 없이 새로운 신령의 세계로 회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단군신화의 의미는 천상세계와 지상세계, 가정과 국가, 만물과 인간 나아가 이러한 모든 존재들의 상호 관계성까지 포괄적으로 관련되고 있으며 인간의 생의 근원과 사후의 세계까지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한반도의 한민

속에 국한된 한 편의 신화라기보다 국제화 시대, 인류공동체 시대, 다문화 시대에 있어서 인류가 공통적으로 갖추고 공유해야 할 인생관에 관한 가치적 이념을 담고 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현대인들이 인생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통하여 인간 존재의 신성한 가치와 삶과 죽음에 대한 근본적 의미를 재확인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단군신화의 전통사상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군신화가 갖고 있는 의미는 한민족의 고유한 전통사상을 특징짓는 것 외에 미래세계의 세계시민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 가치 이념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세계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가치관을 단군신화의 기존 연구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1 홍익인간사상

단군신화에서 환웅이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온 이유는 ‘널리 사람을 두루 이롭게(弘益人間)’하기 위해서라고 그 동기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즉 환웅이 이 땅에 와서 단군을 낳고 나라를 세우게 된 건국이념으로 홍익인간을 말했는데, 이것이 인간세계를 다스리고 만백성을 교화하는 원리가 된다. 즉 홍익인간의 깊은 뜻은 한민족의 최초 윤리사상의 근거가 되었고, 민족의 주체의식을 형성하는 힘이 되어 인간중심주의를 형성하는 전통사상의 연원이³⁾ 되었던 것이다(심우섭 2004:15).

단군신화에 투영된 ‘홍익인간’의 정신은 문명사회인 현대의 부정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정신이다.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겠다는 ‘홍익인간’의 정신은 민족적인 범위 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지향적인 가치로까지 확

3) 홍익인간이라는 전통사상은 신라의 화랑정신, 천도교의 인내천 사상 등에 영향을 주었다.

대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홍익인간 사상은 일차적으로 회복되어야 할 민족의 근본적인 정신 가치로 한민족의 민족적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게 하고 현재에 요구되는 인류에라는 정신적 가치로 확장되어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분단 상황에 처한 한민족을 하나로 결속시켜 주는 하나의 구심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윤이흠 1977:5; 장준혁 2006:24-25).

홍익인간사상은 그 안에 박애, 평등, 인간 존중의 자유정신과 평화의 정신이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인간을 위하는 홍익인간사상은 인류가 창안한 최선의 정치이념인 민주주의도 포섭하게 된다(최성종 2004:73). 민주주의를 실현하여 자유와 평등을 확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려는 시도는 홍익인간사상과 그 이념을 같이한다. 따라서 홍익인간 정신은 인간이 갖추어야 할 기본 도리로서 한민족에게 국한되지 않고 세계시민사회의 이상적인 가치관을 제시해 준다고 볼 수 있다.

3.2 종교사상

종교는 인간 생명의 근원과 사후의 세계까지 다루는 것으로 인간 생활의 총체적 삶에 직간접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단군신화는 역사과정을 통해서 한국인들이 깊숙이 접하고 있는 다양한 종교사상의 근간이 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단군신화와 연관된 종교사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무속사상

첫째, 하늘 숭배사상을 살펴보면 단군신화의 내용 중에서 태백산의 신단수 나무 아래는 원시 한민족이 숭배하고 신앙하는 천신(하늘님)에게 제를 올리던 신단이다. 즉 단군신화는 한민족이 하늘님으로 숭배하던 천신에 대한 신앙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단군은 천신에게 제를 지내는 제사장이면서 정치적 군장이다. 따라서 단군신화의 원문에 언급된 ‘단군왕검’은 제정일치 시대의 군장을 의미하는 용어로 본다. 즉 ‘단군’이란 하늘을 의미하는 몽고어 ‘탱그리’⁴⁾와 통하

는 것으로 제사장의 의미이고, ‘왕검’이란 임금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둘째, 천부인은 신권을 상징하는 칼, 거울, 방울의 세 가지로 볼 수 있다.⁵⁾ 이는 현재까지도 무속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로 단군을 제사장으로 볼 수 있게 해 주는 근거가 된다. 그리고 환웅을 신(神), 웅녀를 수(獸)로 보고 단군을 인(人)으로 보아 인간을 신과 동물의 중간적 존재로 파악하는 고대인의 철학이 담겨 있다는 견해도 있다(김용덕 1984).

셋째, 숫자 삼(三)은 삼자를 선호하는 한국인의 의식 속에서 천지인(天地人)을 상징하며 이를 하나로 보는 한국인의 전통적인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삼위태백, 천부인 세 개, 삼천 무리, 풍백·우사·운사 등 삼자, 곰이 삼칠일 만에 인간으로 변한 것 등 삼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한민족이 숫자 삼과 밀접하다는 것을 보여준다(최운식 1992).

넷째, 환웅이 내려온 곳의 나무가 신단수(神檀樹)인데, 신단수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신성한 매개물로서 신이 깃들어 있는 신목이자 그 신을 섬기는 의식을 행하는 제단 구실을 하는 나무이다. 한국에서는 수림이 씨족의 조상과 관계되는 곳이 많은데, 신단수는 한국인의 수목 숭배 사상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윤경수 1997:15; 김기창 1986:104).

또한 원시사회에서 큰 나무나 오래된 나무를 신성시하는 풍습이 있었고, 이는 현재도 남아있는 서낭당이나 솟대와 같은 특정 구역을 신성시하는 것에서도 그 존재를 확인해 볼 수 있다. 나무나 평지보다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신단수는 태양신에 근접하려는 원시신앙의 한 형태로 파악할 수도 있다.

4) ‘지고(至高)의 천신(天神)’을 불가리아어로는 Tangra, 알타이어로는 TengTe쇼르(Shor, 러연방의 아시아계 소수)어로는 Tegri, 카카스(Khakas, 시베리아 남부 투르크어족의 일종)어로는 Tigr, Ter, 투바(Tuva, 시베리아의 하나)어로는 Däär, 추바쉬(Chuvash, 우랄산맥 서쪽의 투르크어족의 일종)어로는 Tangara, 몽골어로는 Tängär, 부리아트(Buryat, 시베리아 지방)어로는 Tängäri, Tängri, 파미르(Pamir, 중앙아시아)어로는 Tandra, 아시리아(Assyria)어로는 Tanra, 슈메르(Sumer)어로는 Dingir, 타타르(Tartar, 불가강 연안에 사는 투르크어족)어로는 Tängere, 칼미크(Kalmyk, 몽골 서북 방언)어로는 Tengri라 한다 (Tokarev 1980). 이 어휘들은 어원상으로 모두 ‘하늘’과 연관되어 있다.

5) 천부인을 최남선은 무구로 보아 신경, 신령, 신검이라 했다. 그리고 자연 환경들 가운데 비, 구름, 바람과 같은 기상을 조절할 수 있는 신성한 주술물이라는 설도 있다(윤철중 1997:31).

따라서 부정하지 않고 깨끗하며 하늘과 가까운 곳에 환웅이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웅녀가 여자로 변해서 신단수에서 아기 낳기를 바라는 것은 나무의 신성성과도 연관이 되지만 신단수가 남성의 성기를 상징한다고 보는 관점도 있다(장준혁 2006:28).

다섯째, 쑥과 마늘은 통과 의례의 소재로 병을 치료하거나 귀신을 쫓는 풍습이 오늘날에도 잔존하여 인간 형성과 독성 제거라는 주술적 효력을 갖는다(장준혁 2006:29).

여섯째, 통과 의례(금기)는 굴이라는 일정 공간이 있고 삼칠일이라는 일정 시간이 존재하며, 이 공간과 시간은 금기를 형성한다. 호랑이는 통과 과정에서 일탈한 금기를 어긴 존재이기 때문에 가치가 부여되지 않는 반면에 곰은 이러한 통과 의례라는 무적(巫的) 시련을 통해 신모(神母)가 되고 지모신(地母神)이 되는 숭고한 가치를 지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천진기 2003:178).⁶⁾

(2) 신선사상

신선(神仙)사상이란 초인적인 신통력을 가지고 불로장생하는 신선을 숭배하는 사상이다. 신선은 선인(仙人)이라고도 하는데, 이들은 하늘에 오를 수 있다, 즉 승천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이 신이 되어 승천할 수 있다면 이는 곧 보통의 인간이 아니라 하늘사람인 천인(天人)이며 신인(神人)이다. 이 천인이 머물러 있는 곳이 산꼭대기이다. 그러므로 산꼭대기에 머물러 있는 하늘사람(천인, 신인)을 신선이라고 불렀다. 한국의 신선 사상에서는 인간이 신이 되어 천상에 승천할 수 있는 반면에 천신이 하강하여 인간세계에 머무르기도 한다. 이 사상에 따라 하늘님이 하늘에 있으면 천신으로, 그리고 산에 내려오면 산신으로 우러렀다(이강오 1968:23-24).

단군신화에서 천신인 환웅이 하늘에서 천하를 다스릴 뜻을 가지고 삼천의 무

6) 현재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은 바로 이러한 일정한 공간과 시간이 만들어내는 금기 속에서 자신들을 단련시키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지만 인고의 정신으로 통과 의례를 거치게 되면 곰의 존재와 같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탈바꿈된다는 것을 주지시킬 수 있다. 이렇게 신화의 의미가 학습자들이 처한 현실과 관련 지어 이해될 때 신화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고 학생들이 처한 현실에 대한 이해까지 포함하여 정신적 토대로서의 단군신화를 통한 교육적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리를 거느리고 인간세계인 신단수 아래로 내려온 것과 단군이 죽지 않고 장수하여 마침내 입산하여 산신이 되었다고 하는 내용은 한국의 전통 신선 사상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환웅이 남자로 변하여 웅녀와 결혼하는 것과 곰이 금기를 지켜 내고 사람으로 변하는 것도 도가적인 신선사상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유교사상

한국인의 예절문화, 생활문화 전반에 미풍양속으로 전해 오고 있는 다양한 민속적인 전통문화는 유교사상⁷⁾이 근간으로 자리하고 있다. 또한 한국사회의 개인 윤리, 가정윤리, 사회윤리의 기본 이념도 유교사상의 삼강오륜이 바탕이 되고 있다. 이처럼 개인에서부터 사회 전반에 이르기까지 종족, 형적, 전후 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게 하고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시켜 온 유교사상은 한국인의 삶을 특징짓는 전통적인 정서가 되고 있다.

단군신화 속에는 유교사상의 핵심인 삼강오륜의 근거가 되는 내용이 투영되어 있다. 첫째, 환웅은 아버지인 환인에게 세상에 내려가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의욕을 갖고도 섣달 자기의 의사를 피력하지 못한 것은 아버지의 뜻을 어길까 염려한 효심의 발로이고, 환인이 자식의 뜻을 헤아려 친히 신천지를 개척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것은 자애로운 부정(父情)의 발로이다. 이러한 부자의 관계는 삼강오륜의 부자유친(父子有親)덕목이다. 둘째, 환웅이 무리 3천을 이끌고 신시를 이루어 풍백·우사·운사와 더불어, 곡(穀)·명(命)·병(病)·형(刑)·선(善)·악(惡)을 주장하고 인간세상에서 천리(天理)로써 교화한 것은 인간존중과 인간중심사상을 바탕으로 한 군신화합의 윤리를 보여준 것이다. 셋째, 환웅이 아기를 갖고 싶어 하는 웅녀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고, 사람으로 변하여 부부의 관계를 맺고, 단군을 낳게 되는 과정은 부부간의 상호 존중과 관계적 질서를 잘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환웅과 단군이 민생을 위해 천리 법도의 질서로 인간세상을 교화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7) 단군신화에 나타나는 유교사상과 전통윤리사상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심우섭(2004:271-272)을 참조하기 바란다.

(4) 불교사상

단군신화를 소개한 일연은 신분이 승려이다. 따라서 불교사상과 시각이 그 안에 투영된 것은 자연적인 현상일 것이다. 일연이 『삼국유사』에서 단군신화를 전하면서 환인에 주석을 달아 설명할 때 불교의 도리천왕 석제(釋帝)라고 한 것으로 보아 단군신화를 불교적으로 본 것이 확연히 드러난다.

불교의 삼십 삼 천(天) 가운데 도리천은 수미산 정상에 있다. 그리고 그 정상에는 도리 천주(天主)가 삼십 삼 천의 주재자로 되어 있다. 불교에서 석제 환인은 천상세계의 최고신이 되면서도 또한 지상에서도 살 수도 있는 천주(天主)라고 본다. 일연은 위와 같은 불교의 천관을 가지고 단군신화를 보았기 때문에 환인을 곧 석제로 보았으며, 태백산을 수미산과 같이 보게 되었다(이강오 1968:28-29). 특히 단군이 고조선을 통치하다 아사달에 숨어 산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통해 불교의 윤회사상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3.3 조화사상

단군신화에는 천상세계에서 하강하여 지상세계에서 나라를 이룩하고 가정을 갖고 백성을 다스리는 데에 있어서 어떠한 갈등구조도 나타나지 않으며 천상의 법도로 조화롭게 나라를 관리했다. 여기에서는 단군신화에 나타난 조화사상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건국과정의 민주성이다. 단군신화에 나타나는 천상-신시-지상으로 이어지는 공간 구조의 이동은 환인-환웅-단군으로 이어지는 혈통을 보여준다. 단군신화 속의 천손 하강 모티브가 보여주는 각 신의 신격은 그 관계가 조-부-손의 삼대가 되는 삼위일체의 분명한 체계가 서 있다(김병희 1998:1-17; 정병룡 1984:6). 그런데 천상의 혈통이 지상으로 내려와 건국을 하는 이유는 싸움이나 전쟁이 아니라 천상의 이상을 지상에서 실현하여 지상의 인간을 이롭게 하겠다는 생각에 의해 촉발되었다. 따라서 단군신화에서는 지상에서의 건국과정이 폭력적인 요소가 없이, 가장 덕치주의적인 방법으로 개국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둘째, 종적 질서의 조화이다. 먼저 환인과 환웅의 부자관계는 종적이고 수직

적인 관계이면서 상호 의사 존중과 부자의 애정(인간애, 박애정신)을 바탕으로 조화로운 종적 질서를 유지하며 이상적인 부자관계를 보여준다. 이는 환인이 환웅이 지상에서 홍익인간을 할 수 있는가를 타진한 후에 지상에 내려가 다스리게 하는 데서 엿보인다.

환웅은 하늘의 무리 3천을 데리고 지상에 내려와 온갖 인간세상의 일을 처리하면서 무력이나 권위가 아닌 천리(天理)로써 인간(백성)을 다스린다. 즉 세상을 교화함에 주종적이고 권위적인 군신관계를 배제하고 오직 민생을 위해 자연의 본성과 이성으로 인간세상을 다스림을 알 수 있다(심우섭 2004:271-272).

셋째, 횡적 질서의 조화이다. 여자로 변한 웅녀가 혼인하여 주는 이가 없어 늘 신단수에서 기도하니 환웅이 잠깐 변하여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 이 결혼은 남녀 간의 결합을 통한 음양의 조화를 보여 주는 동시에, 천상신과 지상신의 화합을 의미한다. 이는 곧 하늘과 땅이 서로 대립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 관계에 있음을 말한다. 또한 변화무쌍하고 자유자재하는 선인의 경지를 통해서 천존지비(天尊地卑)를 벗어난 계층을 초월한 상호조화를 위한 평등사상을 볼 수 있다(심우섭 2004:271-272).

넷째, 문화와 사상의 포용성이다. 단군신화는 신석기 문화 전통을 지닌 초기 청동기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웅녀(곰)로 대표되는 신석기 시대의 빗살무늬토기 문화와 환웅으로 대표되는 청동기 시대의 무늬 없는 토기 문화의 평화적 조화와 결합을⁸⁾ 신화적으로 표현한 것이다(이범교 2005:101).

단군신화는 또한 고대 사회의 토속 사상인 샤머니즘과 외래 사상인 유·불·선이 만나 서로 융합하면서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문화의 주체성을 보여준다. 현대 사회에서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전 세계와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외래문화의 수용에 있어서 혼란스러운 상황에 접하게 된다. 단군신화가 다른 문화를 평화적으로 수용해서 발전시켰던 조화 사상은 현대에서도 문화의 이질성과 혼란 상태를 극복하게 하는 혜안을 제시해 준다.

8) 혹은 곰을 토맹으로 하던 수렵 사회에서 농경 사회로의 이동으로 보기도 한다.

4.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전통사상 교육 내용과 방법

4.1 단군신화의 교육 현황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단군신화에 대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한국어 교육 기관마다 다양한 교재를 사용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국내에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의 역사가 가장 오래된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교재와 최근 국내외 다수의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의 한국어 교재에서 단군신화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의 교재에서는 단군신화가 연세대 4급 읽기 교재의 제 9과 '옛 이야기, 옛 노래를 찾아서'에 수록되어 있다. 이 교재는 단군신화의 내용을 현대 한국어로 풀이해서 읽기 텍스트로 제공하고 있으며 읽기 능력 향상 목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본적인 구성을 살펴보면 읽기 전 활동-본문 읽기-단어-요약하기-내용 익히기-더 생각해 보기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읽기 전 활동에서 한국인의 출발 근원에 대해서 생각하고 학습자 나라의 신화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은 단군신화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활동으로 볼 수 있다. 본문 읽기와 단어, 요약하기, 내용 익히기는 단군신화 본문에 대한 읽기 숙달과 내용을 이해하는 데 많은 중점을 두고 있다. 더 생각해 보기에서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을 제시 한 이유를 생각하게 하여 동물이 사람이 되는 초월적 배경에 대한 사고의 깊이를 확장하게 하고 있으나 단군신화에 나타난 구체적 전통사상을 교육하는 데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 교재에는 단군신화가 중급 2의 제8과 '옛날 이야기'에 포함되어 있다.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교재와 마찬가지로 읽기 지문으로 수록되어 있다. 경희대학교 교재에서는 단군신화를 단순히 내용 이해를 파악하는 정도로만 다루고 있다. 단군신화를 통해 가르쳐야 할 전통사상을 별도의 자료를 통해 교육할 수도 있겠지만 교재를 통해서 교육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간단히 살펴본 대표적인 한국어교육기관의 한국어 교재는 단군신화의 지문을 통해 학습자의 읽기 능력의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을 이해하고 한국의 전통사상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2 단군신화의 교육 내용

단군신화의 교육 내용은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의 전통문화 및 전통사상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할 것이다.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는 자신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면서 이를 바탕으로 하여 사회 활동을 하고 싶어서이다. 따라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한국어를 통해서 자아를 성취하고 자신이 속한 사회 그리고 나아가 국제 사회의 발전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이다. 한국어 학습자가 이러한 개인적인 목표와 사회적인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단군신화 속에 투영된 한국의 전통사상을 교육하여 학습자가 폭넓은 지식과 안목을 갖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외국인 학습자에게 단군신화를 통해 교육되어야 할 한국의 전통적인 사상과 가치관은 앞에서 살펴본 단군신화의 전통사상과 연계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⁹⁾

첫째로 홍익인간 정신과 인본주의 사상이다. 이는 사람이 사회와 역사의 주체임을 밝히는 것이다. 단군신화의 내용에 의하면 환웅이 지상의 태백산 마루에 내려 온 목적은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신이나 자연 또는 어떤 제도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홍익인간 정신을 통해 인본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둘째로 인류 공영의 정신이다. 즉 단군신화는 사람들이 더불어 행복을 누리는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환웅은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 지상에 내려왔다. 지배자나 종교 권위자와 같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

9)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습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윤내현(1995:351-362)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다.

나라 모든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해 지상에 내려온 것이다. 모든 사람이 널리 이익을 얻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인류가 공영을 누리는 사회를 그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로 지상낙원이 목표였다. 즉 하늘의 이치를 땅위의 인간세계에 적용하여 현세에 낙원을 꾸미는 것이 그 목표였다. 고조선인들은 내세에서 천국이나 극락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했던 것이 아니라 현세를 바로 천국이나 극락 같은 낙원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다. 단군신화에 의하면 환웅은 지상에 내려와 인간의 360여 가지 일을 모두 맡아 다스렸는데, 재세이화(在世理化) 즉 세상에 있으면서 그곳을 이치에 맞는 합리적인 사회로 다스렸던 것이다. 세상을 합리적인 사회로 발전시키는 것은 고조선인들이 추구했던 목표였던 것이다. 고조선인들은 신과 사람들이 공존하는 사회, 신과 사람들이 같이 함께 공동 번영하는 사회를 추구했던 것이다.

넷째로 화합과 조화이다. 서로 다른 것을 대립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의 관계로 보았다. 하느님의 아들인 환웅이 지상에 내려와 지상에 있었던 곰과 호랑이 등을 폭력으로 지배한 것이 아니라 곰으로 하여금 여자로 진화되도록 한 후 그녀와 결혼하여 단군을 낳았다. 이것은 천상신과 지상신의 화합을 의미한다. 그리고 하늘(천상세계)과 땅(지상세계)이 서로 보완관계에 있음을 나타낸다.

이상에서 언급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외국인을 대상으로 단군신화를 교육할 때는 그 중심이 되는 내용이 ① 통치자가 추구하는 이상은 홍익인간 정신의 구현으로, 모든 통치 행위는 인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이어야 하며, ② 그 이상이 실현되어 모든 사람들이 두루 이익을 얻는 행복한 사회가 이루어져 전쟁이 없고 항상 평화만 존재하는 인류공영의 사회가 이루어져야 하며, ③ 그러한 이상은 바로 인간이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 실현되어야 하며, ④ 이를 위해서는 하늘세계-인간세상-동물세계 등 모든 우주 만물이 조화와 균형, 화합 속에서 대립이 없이 상호 보완하는 관계 속에서 공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내용은 21세기 평화세계건설을 위한 인류공동체사회 형성을 위해 중요한 덕목이 되며, 단군신화의 건국이념에서 추출할 수 있다는 면에서 의의가 크며, 단군신화의 전통사상은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중요한 교육내용이 될 것이다.

4.3 단군신화의 교육 방법

여기서는 외국어로서(또는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의 영역에서 외국인에게 단군신화를 교육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교실에서 외국인에게 단군신화를 교육하는 것은 외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구사 능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단군신화 속에 투영된 한국의 전통사상을 이해할 수 있는 문화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성인 외국인 학습자에게 단군신화를 활용하여 한국의 전통 세계관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을 탈피하는 학습자 중심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¹⁰⁾ 그리고 단군신화는 그 자체가 국가의 성립과정을 기록한 역사적 문헌이라는 면에 있어서 문학인 동시에 역사이기 때문에 이 신화가 배경으로 하는 당대의 역사와 사회에 대한 이해가 동반되어야 한다(김종철 1997:46-48). 그러한 수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기본 원칙이 유지되어야 한다. 첫째는 학습자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교육이다. 신화는 독립적, 자족적 완결성에 의해 어떤 것을 지칭한다기보다는 상징적이다. 따라서 신화 교육을 통해 한국어 학습자들이 현실을 변형하여 그런 형상을 상징으로 이해하고 그 의미를 읽어내며 또 새로운 형상을 제시할 수 있도록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둘째는 비교문화적 교육이다. 한국어를 통해 외국인에게 신화 교육을 실시하면서 한국 문화와 가치관, 세계관의 독창성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문화적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위에 언급한 교육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 목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현대 한국어로 된 텍스트를 사용하여 단군신화의 내용을 이해한다.
- ② 내용의 줄거리와 특징을 파악한다.
- ③ 단군신화에서 한국의 문화적 요소를 찾아낸다.

10) 학습자 중심 수업이란 교육과정에서 결과 중심의 수업, 지식 중심의 수업이 아닌 작품을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절한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교수-학습 전략 중심의 수업을 의미한다.

- ④ 한국의 전통 문화와 사상을 이해한다.
- ⑤ 한국 문화의 고유성과 정신문화를 이해한다.
- ⑥ 한국의 전통 문화와 사상을 외국인 학습자 자신의 모국 문화와 사상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한다.
- ⑦ 외국인 학습자가 한국의 현재 풍속, 생활문화, 생활방식, 가치관, 정서 등을 이해하도록 하여, 한국에 대한 이해도와 적응력을 높이도록 하며, 한국 사회와 모국의 사회, 그리고 나아가 인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고력을 함양한다.

단군신화를 활용하여 외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구사 능력과 더불어 그 내용 및 그 안에 투영된 한국인의 전통사상을 학습하여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수-학습 전개 과정을 ‘도입→이해→감상→비평→적용’의 5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¹¹⁾

① 도입 단계

이는 준비 단계로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스키마를 형성하는 활동을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교육할 단군신화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여 학습자의 관심을 유발한다. 단군과 단군신화에 관한 시청각 자료(컴퓨터, TV 자료), 관련 화보(단군 영정, 토tem 화보 등)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흥미를 이끌어내고, 학습자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단군신화에 대한 기본 개념을 마음속에 갖추도록 한다.

② 이해 단계

이 단계에서는 단군신화가 지닌 신성성을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

11) 신화교육을 포함하여 문화교육은 교실에서 이론적 설명만으로 효과적인 학습을 기대하기 어렵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첫째로 직접적인 문화 체험이지만 신화 학습은 직접적인 체험은 불가능한 장르이다. 둘째는 간접적 체험으로 신화적 문화유산을 답사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교실에서의 이론적 학습이다. 이 방법은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교육 방식으로 한국어교육에서도 가장 널리 쓰이고 있다. 따라서 신화를 활용하는 교육은 우선 교실에서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그를 토대로 다양한 학습기제를 활용하여 학습의 성취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양민정 2008:165-167).

고 이 단계에서는 한국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학습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통합적 접근이 전개되게 한다.

첫째, 글의 내용을 통독하기

(소리내어 읽기 또는 묵독, 머릿속에 상을 그리며 읽기)

둘째, 글의 줄거리 정리하기

셋째, 글의 신화적 요소 알아보기

넷째, 글의 신성성 알아보기

다섯째, ‘홍익인간’의 이념에 대해 이해하기

여섯째, 곰 토테미즘에 대해 알아보기

③ 감상 단계

이 단계에서는 단군신화가 가진 신화로서의 가치를 알아보는 단계이다.

첫째, 단군신화에 투영된 한국인의 전통사상과 가치관, 세계관을 탐색하기

둘째, 단군신화에 나타난 선인들의 원초적 삶의 모습 파악하기

④ 비평 단계

이 단계는 단군신화가 지닌 신화로서의 가치와 진실성을 알아보는 단계이다. 그 구체적인 학습 활동으로 진실성과 허구적 상상력을 중심으로 토론을 하거나 글쓰기 활동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단군신화를 현대의 인물과 현대를 배경으로 하여 새롭게 구성해서 글을 써 보는 것이다.

⑤ 적용 단계

이 단계에서는 문화적 상대성을 인정하여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교수와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단군신화와 다른 신화, 전설, 민담과 소설의 관련성 알아보기

둘째, 단군신화와 외국인 학습자의 건국 신화, 또는 기독교의 창세기와 비교해 보기

셋째, 감상문을 쓰고 발표하기 또는 토론하기

넷째, 단군신화에 나타난 전통사상을 바탕으로 현대사회의 갈등 해결 토론하기

다섯째,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자세 토론하기

위의 수업 방법에 의하면 이해와 감상의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한국의 전통사상에 대한 교육과 학습이 이루어진다. 특히 단군신화의 텍스트에 나타나는 모티브를 중심으로 지도하면 효과적이다; (㉠) 천상적 혈통: 단군은 환인의 손자로서 천상적 혈통을 지닌 고귀한 존재이다. (㉡) 홍익인간 정신: 어려운 인간 세상을 평화롭게 하여 인간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천상에서 지상으로 내려온다. (㉢) 초월적 능력: 단군의 아버지 환웅은 자연 현상을 주관하며 인간을 교화하는 초월적 능력을 지녔다. (㉣) 신성한 장소: 태백산과 신단수는 한민족의 삼신 신앙과 수목신앙과 관련 있는 신성한 장소이다. (㉤) 천부인: 하느님의 아들임을 확인하는 징표이다. (㉥) 신이한 출생: 단군은 천상적 혈통인 환웅과 곰이 인간으로 변한 웅녀 사이에서 신이하게 태어났다. (㉦) 국가의 시조: 단군은 평양성에 도읍을 정하고 한민족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건국했다. (㉧) 쑥과 마늘: 세속을 탈피하고 신성한 존재와 만나기 위해 요구되는 금기로써 사회와 성취의 과정에서 요구되는 제약으로, 이것을 먹는 것은 의지를 훈련하는 과정이다. (㉨) 굴속과 삼칠일: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존귀함으로 거듭나기 위해 인고해야 하는 공간과 시간이다. (㉩) 곰과 호랑이: 인간이 되기 위해서 시련을 겪어야만 하는 존재로서 사회에 적응하고 원하는 것을 성취하여 존귀하게 되기까지 통과의례를 거치며 노력해야 하는 존재이다.

감상의 단계에서 유의할 점은 교사가 신성성과 관련된 초월성을 설명할 때 신화를 현대적 사고로 재단하지 말고, 신화가 당대의 사회상과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다고 인식하도록 지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천상적 혈통은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념상 조상이 훌륭한 존재라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며, 초월적 능력은 당시 제사장들의 주술적 효과에 대한 믿음과 고대인들에게 아직 과학적 사유가 미발달했던 것이 반영된 것이라는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어야 한다.

비평과 정리의 단계에서는 성인인 외국인 학습자의 인지 능력 향상과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활동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으로 예를 들면, 단군신화와 중국의 건국신화인 반고신화와 비교, 단군신화와 일본의 건국신화와의 비교¹²⁾ 또는 동명왕신화와 그리스·로마 신화와 비교하

여 같은 점과 다른 점을 고찰하기 등의 활동이 가능하다. 또한 기독교권의 학습자를 대상으로는 단군신화와 기독교 창세기와의 비교 활동이 가능하다. 이러한 학습 활동은 교사가 미리 다른 나라의 건국 신화를 준비하여 읽기 자료로 제공하거나 또는 이야기로 들려 줄 수도 있고, 숙제로 제시할 수도 있다.

5. 맺음말

이 연구는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단군신화에 투영된 한국의 전통사상을 교육하여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한국 전통사상을 통해 세계시민의 덕목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 따라서 단군신화에 나타난 전통사상 중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내용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이 연구는 단군신화의 전통사상으로 홍익인간사상, 종교사상, 조화사상을 다루었다. 홍익인간사상은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는 사상으로 인류공동체사회 형성을 위해 가장 근간이 되는 사상이며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중요한 사상이 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단군신화 속에 포함된 종교사상은 무속사상, 신선사상, 유교사상, 불교사상이다. 이들 종교사상은 인간을 신인합일의 일체를 통한 신성한 존재로 보는 한국인들의 인간관을 형성하는 기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군신, 부자, 부부 관계에 있어서 유기적 사회 질서의 유지를 위한 중요한 사상이다. 조화사상은 환웅이 웅녀를 맞이하여 가정을 이루고 국가를 세워 통치하는 데 있어서 갈등과 전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천상의 법도로서 조화로운 통치를 실천하는 이념의 바탕임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는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전통사상 교육 내용으로 홍익인간 정신을 바탕으로 한 인본주의 사상, 인류공영의 정신, 지상천국 실현을 위한 천상의 조화로운 이치를 다루었다. 그리고 교육 방법으로는 도입 단계, 감상 단계, 비평 단

12) 한중일 동아시아 삼국의 건국신화에 대한 비교 및 그 교육 방법에 대한 연구는 양민정 (2008:147-169)을 참고하기 바란다.

계, 적용 단계의 과정을 제시하여 학습자가 단순히 한국어 읽기 능력만을 향상하는 것을 뛰어넘어 단군신화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다.

한국어교육에 있어서 단군신화 교육이 단순히 한국어 기능 숙달과 한국문화 이해를 넘어 단군신화의 건국이념이 21세기 평화세계의 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심도 깊은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의 개발에 관심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병희(1998), “신화와 교육-단군신화에서의 교육의 의미”, 『교육학 연구』 36권 4호, 1-17쪽.
- 김용덕(1984), “단군신화와 신선사상의 연원”, 『한국민속학』 제17집, 31-54쪽.
- 김종철(1997), “민족 신화의 전승과 그 의미”, 『민족 문학사 강좌(상)』, 서울: 창작과 비평사, 46-63쪽.
- 신원기(1997),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단군신화>에 대한 고찰”, 『어문학 교육』 제19집, 165-186쪽.
- 심우섭(2004), 『한국전통윤리사상의 재조명』. 서울: 이화.
- 양민정(2008), “동아시아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신화 활용의 문화교육 방안 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1권 제4호, 147-169쪽.
- 윤경수(1997), 『한국 신화의 고전문학의 원형상징성』, 서울: 태학사.
- 윤내현(1995), “단군신화의 역사적 해석”, 『인문과학 연구논총』 13호, 351-362쪽.
- 윤이흠(1977), “단군신화와 한민족의 역사”, 『한국 민족 신화의 재점검』, 서울: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35쪽.
- 윤철중(1997), 『한국 도래신화 연구』, 서울: 백산자료원.
- 이강오(1968), “단군신앙(총론 1)”, 『전북대학교 논문집』 제10집, 9-54쪽.
- 이범교(2005), 『삼국유사의 종합적 해석』. 서울: 민족사.
- 이병도(1979), 『삼국유사』. 서울: 광조출판사.
- 장준혁(2006), 『고교 문학 교과 소재 <단군신화>의 교육 방안 연구』. 경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병룡(1984), 『단군신화와 도교와의 관계 고찰』. 조선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천진기(2003), 『한국동물 민속론』. 서울: 민속원.
- 최운식(1992), “단군신화의 교육적 성격과 의미”, 『국어교육』 제79-80호, 369-395쪽.
- 최성중(2004), “단군사상의 현대적 수용”, 『조선대 사회과학연구』 22집 1호(27권),

67-79쪽.

Tokarev, Sergey A.(ed)(1980), *Mify narodnov mira*. Moscow: Sovetskaya Entsiklopediya.

<한국어교재>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육부(2002), 「한국어 중급 II」.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부.

연세대 한국어학당 편(1999), 「한국어 읽기 4급」.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최주열

선문대학교 한국어언어문화학과

충남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100

전자우편: sunmoon888@hanmail.net

최권진

상명대학교 한국어언어문화교육원

110-510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38

전자우편: gjinchoi@hanmail.net

투고일자: 2009. 10. 15

심사일자: 2009. 11. 12

게재확정일자: 2009. 12. 7